

SDI 정책리포트

마을문화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12. 10. 15 제126호

라도삼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마을문화활동의 현황**
- II. 마을문화활동의 효과와 주요사업**
- III.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요 약

최근 들어 마을단위의 문화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마을단위 문화활동은 2011년 이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새로 취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 마을문화 활동은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마을문화 활동의 수준은 아직 맹아적 단계

아직 마을문화 활동은 크게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다. 활동의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활동의 질 또한 공동체 단위의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관심이나 동기, 지역에 대한 관심 등에서 비롯된 활동이 대부분이다. 그 활동 유형 또한 잡지나 방송의 제작, 서점 및 도서관 운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카페, 목공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문화 활동의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아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마을의 문화활동에 대해 크게 만족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을문화 활동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지역에 대한 거주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마을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비교한 결과, 일반시민에 비해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삶의 만족도’ 및 ‘거주지역 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보다 활동을 촉발하는 지원시스템 개발이 필요

마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활동에 주목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마을문화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현재의 활동 중심의 마을문화 활동 확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마을문화 활동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마을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갖춰 놓고, 각 활동을 연계한 형태의 네트워킹과 학습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마을박람회 및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활동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또한 요구된다. 즉, 직접적인 지원보다 제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동시에 많은 예술가와 문화기획자 등이 마을문화 활동가로 활동하도록 학습기회와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해 많은 공공기관이 마을문화 활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존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마을문화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메타지원’ 강화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I. 마을문화활동의 현황

서울시의 마을문화활동은 아직 초기단계

- 마을단위 문화활동은 수가 많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이나 욕구를 표현한 형태가 대부분
 - 마을단위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문화활동은 '성미산 마을', '삼각산 마을', '성대골 마을', '염리동 창조마을', 송파구 문정동의 '즐거운가' 등 정도
 - 나머지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활동

<표 1> 마을문화활동 추진동기별 현황

추진 동기	현 황
지역애착	시웃,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이태원 주민일기
개인적 신념	이태원 주민일기, 더북소사이어티, 이상한 나라의 현책방, 길담서원, 희망동작네트워크
사업모델 차원	이상한 나라의 현책방, 길담서원
정부사업	염리동 창조마을, 도란도란 총현동,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 운동	마포FM, 관악FM
보육과 교육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초록나라도서관, 삼각산재미난마을, 성미산마을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즐거운가
주민복지	방아골사회복지관 '문화자람' 프로젝트

마을문화 활동조사 개요

- 목 적 : 마을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마을을 매개로 한 문화활동 조사
- 기 간 : 2012년 4월1일 ~ 6월15일
- 대 상 : 서울 내 지역을 매개로 한 문화 관련활동
- 방 법 : 현장방문 인터뷰

- 동아리 활동이 가장 많고, 잡지 운영, 카페나 서점 운영 등이 뒤를 잇고 있는 상태
 - 그러나 동아리 형태의 문화활동이나 카페 등은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진 마을에 나타나는 제한적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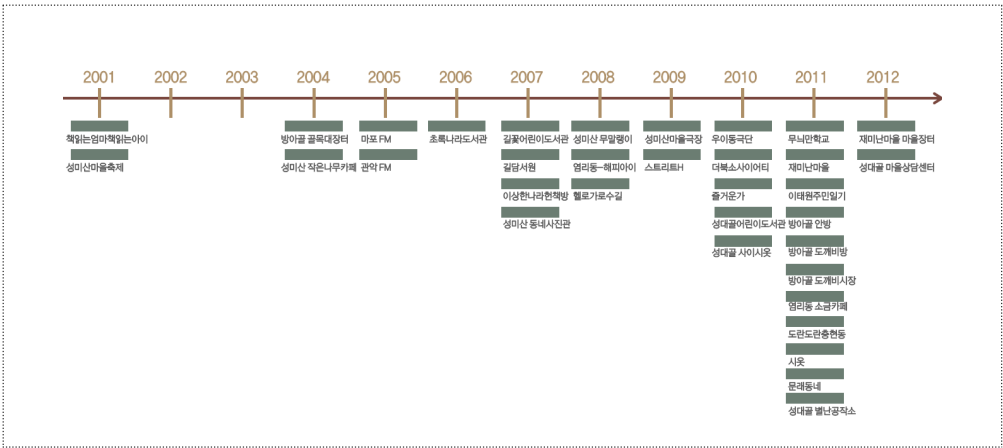
- 대부분 활동은 개인적 형태의 잡지발행이나 서점 및 도서관 운영

<표 2> 마을문화활동 장르별 현황

장르	현황
마을잡지	시웃,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도란도란 총현동
공동체 라디오	마포FM, 관악FM
도서관	길벗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초록나라도서관,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서점	길담서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더북소사이어티
동아리 활동	우이동극단, 진동, 마을밴드 JnB, 요술항아리 등(이상 삼각산재미난마을) 무말랭이, 아마밴드, 동네사진관 등(이상 성미산마을) 염리동 황부자극단(염리동 창조마을) 무지개빛청구개구밴드 등 16개 동아리(즐거운가) 성대골국악예술단, 착한아버지합창단, 어린이뮤지컬교실(이상 성대골마을)
마을카페	재미난 카페(삼각산재미난마을), 도깨비방(방아골), 소금카페(염리동 창조마을), 작은나무 카페(성미산마을), 사이시웃(성대골마을), 국수집 '동화마을잔치날'(길벗어린이도서관)
마을극장	성미산마을극장(성미산마을)
목공소	마을목수공작단(삼각산재미난마을), 안방(방아골), 별난공작소(성대골마을), 나무심는 목수들(성미산마을), 목공동아리(즐거운가)
학교	무늬만 학교(삼각산재미난마을), 즐거운가, 마을에너지학교(성대골마을)
축제/행사	도깨비장터, 골목대장터 등(방아골), 성미산마을축제(성미산마을) 마을장터, 청소년문화제 추락 등(삼각산재미난마을), 국수나눔 잔치(즐거운가)

□ 활동기간 또한 2008년도 이후에나 부각된 상태

- 2008년 몇 개 지역에서 등장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외부화되기 시작
- 2011년에 가장 많은 활동들이 외부화된 것으로 조사



[그림 1] 마을문화활동 형성연도별 현황

마을문화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입지적 특성이 존재

□ 문화활동이 나타난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으로 구성

- 1유형은 공동체 의존형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마을에 나타나는 사례
 - 성미산 마을 등에 나타난 현상으로, 주로 동아리 활동 및 카페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이 주요한 활동 형태
- 2유형은 단체/기관 의존형으로,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발생
 - <방아골 사회복지관>이 추진한 '방아골 문화자람'이나 송파구의 '즐거운가', 동작구 <희망동작네트워크>의 '성대골 마을' 등이 대표적
 - 이들 활동에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던 단체가 존재
- 3유형은 정부사업 의존형으로,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사례
 - 마포구와 주민자치센터가 주관한 '염리동 창조마을'이나 서대문구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한 '도란도란 충현동' 등이 대표적
- 4유형은 '지역경관 의존형'으로 매력적인 경관을 갖고 있거나 지역의 변화에 대한 커다란 위기감으로부터 발생한 유형
 - <헬로 가로수길>, <스트리트 H>, <시웃>, <이태원 주민일기> 등 주요한 잡지들이 경관친화형 마을문화 활동의 대표적 사례
 - 이와 같은 경관의존형 활동들은 대부분 지역경관이 변해가는 문제에 민감하여 지역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목표

<표 3> 유형별 마을문화활동의 형태

유형	주요 형태	사 례
공동체 의존형	주민자발 동아리 활동	성미산 마을, 삼각산 마을
단체/기관 의존형	특정계층 주도형 활동	방아골, 즐거운가, 성대골 마을
정부사업 의존형	주민자치위원회 중심활동	염리동 마을, 도란도란 충현동
지역경관 의존형	잡지 등 경관보전 및 기록활동	헬로가로수길, 스트리트 H, 시웃, 이태원 주민일기 등

- 입지적 형태를 보면,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저층의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
 - ‘삼각산 마을’, ‘성대골 마을’, ‘방아골 마을’ 등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형태
 - ‘삼각산 마을’ 등 대부분 마을은 1~3층의 저층으로 구성되어 지역적 차원의 문화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
 - ‘성미산 마을’만 유일하게 개방적인 입지 형태를 보이고, 별다른 지역 경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한 특징
- 마을공동체 회복 및 마을문화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활동기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입지적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고립된 형태로서 마을주민들이 지역을 공유하기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을 주목할 필요
 - 운용적 측면에선 문화적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원이 밀집된 지역과 문화활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필요
 -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문화의 거점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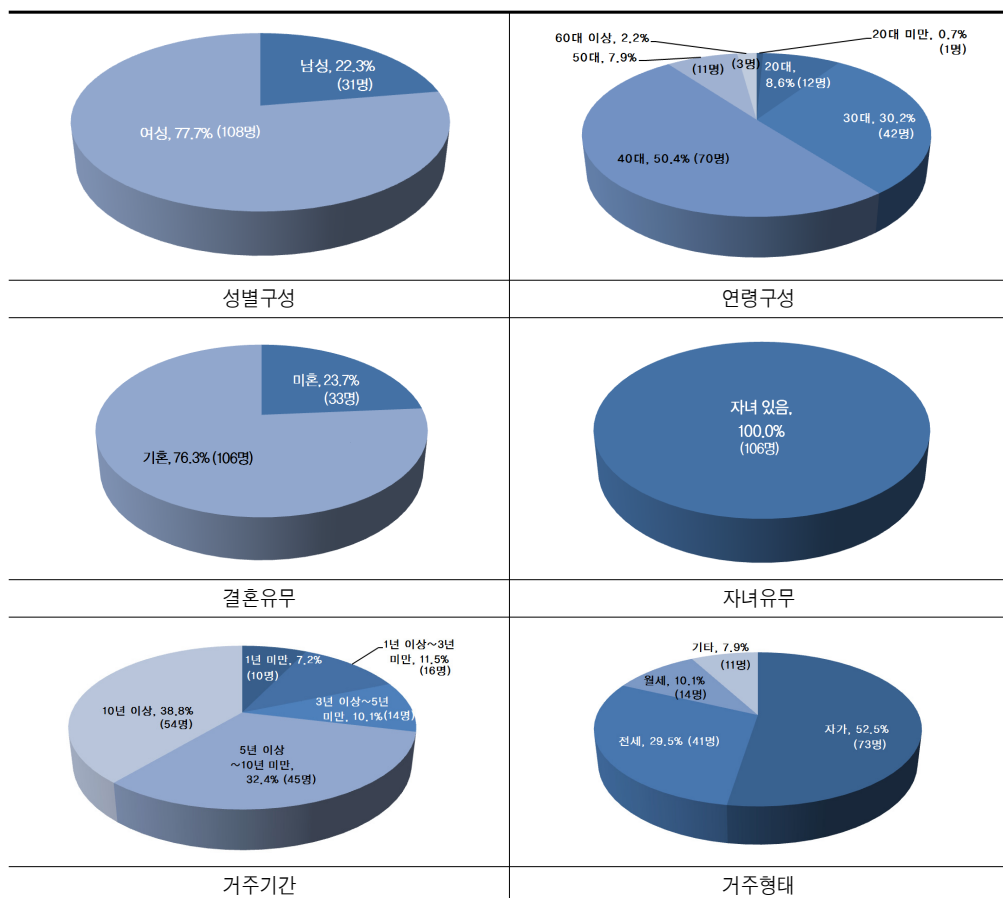
II. 마을문화활동의 효과와 주요사업

마을문화활동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만족도에 큰 영향 미쳐

□ 마을문화활동을 하는 시민을 조사한 결과, 활동 주민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자녀가 있는 40대 기혼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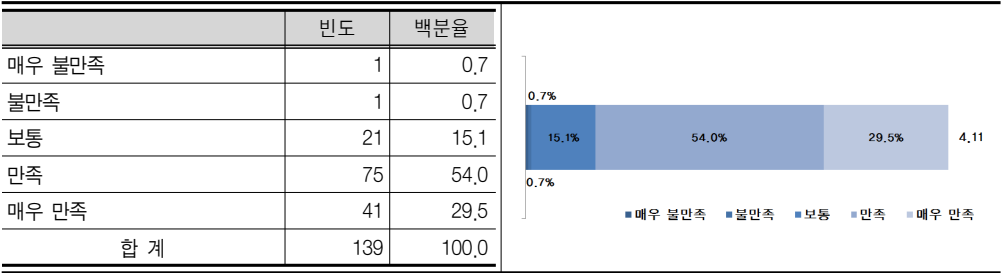
- 마을문화활동은 일정정도 생활의 안정이 필요함을 시사
- 다만, 자가의 비율이 높지 않고, 거주기간 또한 그다지 길지 않아, 마을 활동이 '중산층 운동'이거나 '오랜 거주자들의 운동'일 것이라는 기존의 시각은 편견임을 시사

<표 4> 마을문화 활동주민들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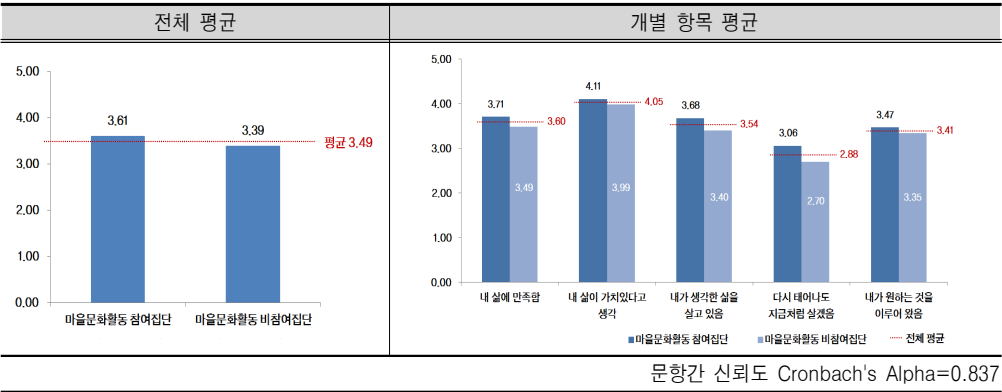
- 마을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11(5점 만점)로 매우 높은 수준
 - 불만족의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만족의 비율이 83.5%

<표 5> 마을문화 활동 참여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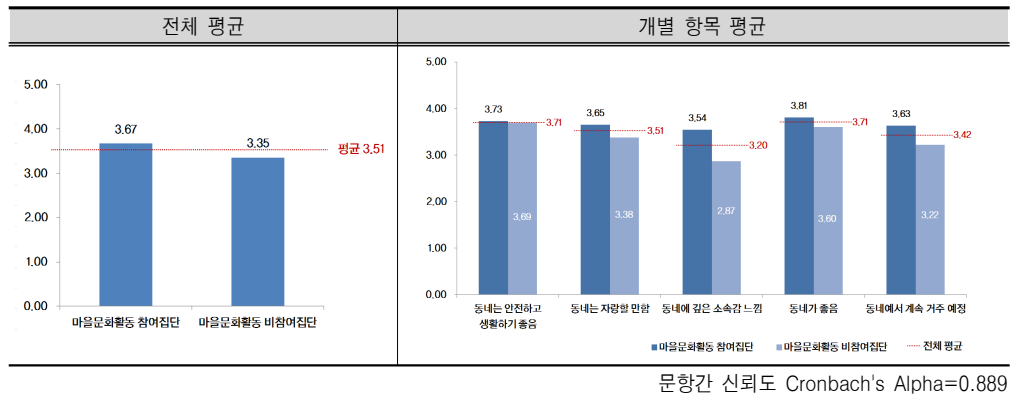


- 마을문화 활동이 미치는 '삶의 만족도'와 '거주지역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일반시민과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지역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에 유의적 수준의 만족도 차이 발생
 - 마을문화 활동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

<표 6> 삶에 대한 태도



<표 7>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마을문화 활동 시민 만족도 조사 개요

- 목 적 : 마을문화 활동이 시민의 삶과 거주지역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기 간 : 2012년 5월22일 ~ 6월4일
- 대 상 : 마을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무작위 표집조사)
- 방 법 : 면대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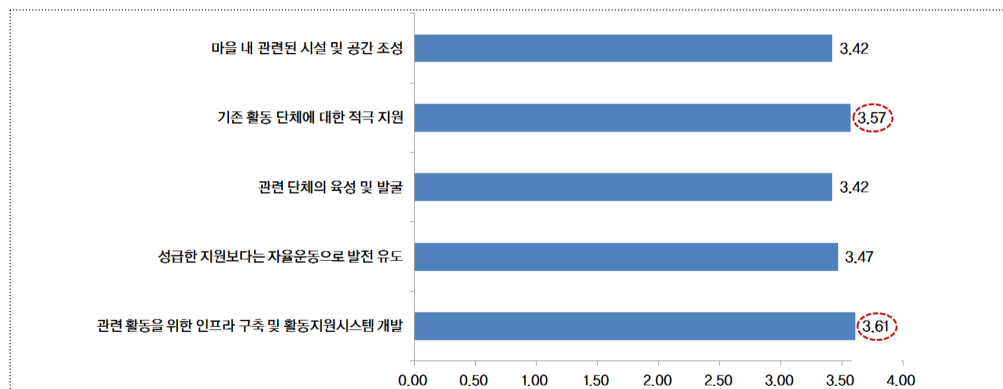
마을활동가 또한 매우 높은 만족도 보여

- ☐ 활동가들은 마을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47.4%가 '만족한다', 53.6%는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
- ☐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여건이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에는 매우 높은 공감대 형성
 - '시민들이 마을을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란 질문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편(31.6%)
 - 반면, '조금만 자극을 주면 시민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뭉칠 것'(78.9%)이란 견해에 상당히 긍정적이며, '서울의 현재 여건 상 마을공동체 형성이 필요

하다’(97.4%)란 항목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

□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과 기존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 마을 내 관련 시설 제공이나 관련 단체 육성 및 발굴이 필요
- 즉, 활동가 지원보다는 기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시스템 및 환경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



[그림 2] 마을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

마을문화 활동가 조사 개요

- 목 적 : 마을문화 활동가들의 마을문화 활동 및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견조사
- 기 간 : 2012년 4월1일 ~ 6월15일
- 대 상 : 마을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총 38명(마을문화 활동 현장조사 대상자)
- 방 법 : 면대면 설문조사

서울시 사업은 <마을예술창작소>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서울시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은 4개 분야 35개 사업, 1,380억 원으로 구성

- 그 중 문화사업은 총 14개 사업, 490억 원

- 문화사업은 총 사업예산의 35%, 사업 수의 40%를 차지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

<표 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내용

2012. 02. 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서」, 2012.2)		2012. 05. 마을공동체 사업확정안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2. 5.3)	
분야	사업(예산)	분야	사업(예산)
토대만들기	14개 사업 (1,159백만원)	토대만들기	5개 사업 (3,000백만원)
주거공동체	11개 사업 (75,526백만원)	복지공동체	11개 사업 (7,400백만원)
경제공동체	3개 사업 (9,516백만원)	경제공동체	5개 사업 (12,000백만원)
문화공동체	29개 사업 (46,221백만원)	문화공동체	14개 사업 (49,000백만원)
복지공동체	11개 사업 (9,502백만원)		

□ 문화관련 주요사업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목표 : 2012년 17개소, 2013년 13개소, 2014년 25개소 설치
- <우리마을 북카페> 조성 : 북카페 형태의 주민 사랑방을 조성
 - 2012년 25개소 설치. 매년 25개소씩 확대, 2014년에는 총 75개소 운영
- <우리마을 미디어문화교실> 운영 : 마을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을 육성하는 사업
 - 매년 700명 이상의 주민 교육이 목표
- <작은 미디어센터> 구축 : '우리동네 미디어문화교실'을 통해 양성된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미디어센터
 - 최소 100개소 이상 설치

- <마을박물관> 조성 : 지역에 있는 명사들의 소장품을 보전하는 박물관 조성, 마을의 문화성을 유지·보전하겠다는 계획

<표 9> 문화분야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사업명	개념 및 내용	목표
마을예술창작소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2012년 17개소, 2013년 13개소, 2014년 25개소 설치
우리마을 북카페	북카페 형태의 주민 사랑방을 조성	2012년 25개소 설치 매년 25개소씩 확대 2014년까지 총 75개소 설치
우리마을 미디어문화교실	마을미디어 운영을 할 수 있는 주민육성	매년 700명 이상의 주민
작은 미디어센터	‘우리동네 미디어문화교실’을 통해 양성된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미디어센터	2020년까지 총 100개소 이상 설치
마을박물관	지역에 있는 명사들의 소장품을 보전하는 박물관을 건립	아직 세부목표 없음

Ⅲ.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

- ☐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마을문화 활동은 대부분 개인적 필요성이나 욕구,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 활동
 - 동아리 형태의 공동체형 활동은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진 일부 마을에서나 나타나는 현상
 - 마을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 ☐ 현재의 마을문화 활동의 실태에 기초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 필요한 전략
 - 현재의 다양한 활동에 기초하여 그들의 필요성을 수렴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욕구의 자극’이 필요
 - 즉, 공모형의 무리한 확산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한 자생적인 확산 필요
- ☐ 주요 추진전략

정책 방향	추진 전략
마을문화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마을문화 활동 플랫폼 및 앱(app.) 구축
	상호학습과 공유의 네트워크 구축
마을문화 활동 촉진 및 유발	마을문화 활동 마케팅
	마을문화 활동가 육성
마을문화 활동의 기반여건 조성	공공기관 혁신(마을문화 공간화)
	메타지원 확대

가장 필요한 사업은 지원시스템 구축

- ☐ 지원시스템은 제반 마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 놓고,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후원하는 것이 중요
 -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동발행이나 배포시스템을 제공하는 한편, 통합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 유사하게 도서관 및 서점, 북 카페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도서나 사서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사업
 - 이를 위해서 '통합적 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마을주민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어플(application)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 다른 한편, 각 공동체의 활동을 네트워킹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학습토록 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
 - 서울의 마을공동체 수준은 아직은 낮은 수준
 - 때문에 여러 사례를 통해 서로 학습하고 체험하며,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나누는 '공유와 공진화의 전략' 필요
 - 이에 각 공동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서로 학습하고 자원(능력)을 공유하는 사업추진 필요

마을문화 활동의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인력양성

- ☐ 현재의 마을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문화활동을 유발하기 위해 우선, 현재의 활동에 대한 '신뢰감'있는 지원과 이들 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문화활동의 유발 및 촉진이 필요

- '마을박람회' 및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마을탐방프로그램'을 운영
- 현재 잘 운영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문화 활동을 전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 한편,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들이 마을문화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 마을(문화)학교 개설·운영 : 마을문화 활동에 대한 마인드 및 방법을 제공
- 마을문화 활동가 지원 : 마을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마을문화 활동의 기반여건을 조성

- 성공적인 마을사업의 사례 중엔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 지원
- 공공기관형 : <방아골 사회복지관>, <염리동 주민자치센터>와 마포구, <충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강서구 길꽃도서관> 등
- 지역단체형 : <희망동작네트워크>, <즐거운가> (지역아동센터) 등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마을문화 공간 창출 및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필요
- 각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기관 내 시설을 마을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유도
- 문화교실 등 각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마을문화 활동 기관으로 육성하도록 조치

- 효율적 공간확보 및 마을문화 활동주체의 확산에 기여 유도
- 마을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 <희망동작네트워크> 등 마을문화 활동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아름다운 재단>의 'Beautiful Fellow'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
 - 각 단체나 기관 등이 마을문화 활동의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

라도삼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7

kuber21@si.re.kr